

대학 글쓰기 연구 동향 분석 및 개선 방안*

- 2001~2020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김현정**

|| 차례 ||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글쓰기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1~2020년까지 KCI 등재후보지 이상급 학술지에 수록된 1,233편의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가 지난 20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논문 제목에서의 상위 빈도 출현 단어를 살펴보면, ‘교육, 방법, 수업, 사례, 학습’이 상위 5위 이내로 등장하여 주로 교육과 학습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 글쓰기 교육 제반 여건 분석 연구, 수요자 중심의 대학 글쓰기 교수법 연구, 대학 글쓰기의 원리 및 내용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 이 논문은 순천대학교 교연비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순천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 글쓰기 연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 필자 연구, 디지털 매체 발달을 고려한 연구, 대규모 수준의 연구, 대학 글쓰기 교육 효과 검증 연구, 대학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 연구 등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대학 글쓰기 연구는 기존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 동향 분석에 근거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학 글쓰기, 글쓰기 연구, 글쓰기 연구 동향, 글쓰기 연구 개선 방향

1. 서론

최근 한국어문학 분야 학술지에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관련 연구논문 이외에 글쓰기 관련 연구논문이 자주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이 한국어문학 분야 학술지에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국내 대학에서 글쓰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각 대학에서 글쓰기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한 이래로 글쓰기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진들이 대학 글쓰기를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학에서 글쓰기 교과목이 필수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글쓰기 관련 연구는 진행되곤 있다. 그런데 이때에는 주로 국어교육과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글쓰기를 다루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대학에서 글

쓰기 교과목이 교양필수로 지정되고 국어국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이를 강의하게 되면서, 점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아닌 고등 교육 과정인 대학에서의 글쓰기가 연구 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쓰기 관련 연구 수의 급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학 글쓰기’만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해 본다면, KCI(한국학술지인용 색인)를 통해 2021년 7월 기준으로 검색되는 학술논문이 2001~2010년까지 255건에 불과했던 반면, 2011~2020년까지는 1,513건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는 연구는 부족하다. 지난 2010년대가 본격적으로 대학 글쓰기 연구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된 시기라면, 앞으로의 2020년대는 대학 글쓰기 연구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글쓰기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 분석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글쓰기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국내 대학 글쓰기 연구의 동향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III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IV장에서는 국내 대학 글쓰기 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국내 대학 글쓰기 연구 동향 분석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그동안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은미는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검토 및 제언」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140편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기준은 ‘방향 및 과제, 교육목표 설정 및 지도 방안, 학문영역별 글쓰기, 현황과 실태 분석 및 지도 방법, 글쓰기 윤리 및 지원시스템, 연도별 논문 수’이다.¹⁾ 이러한 나은미의 연구는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를 통해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학 글쓰기 연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0년 이전의 연구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2010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은미의 연구 이후로 등장한 연구는 김정숙·백윤경의 「대학 글쓰기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의 분석과 시사점」이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학술논문 669편을 대상으로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나은미의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목과 주제어 분석을 통해 ‘글쓰기’, ‘글쓰기교육’, ‘대학글쓰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그동안의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의 주제어가 선명하지 않고 정체성도 불분명하여 학문 영역으로서 ‘글쓰기 교육’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²⁾ 이와 같이 주제어 분석을 통해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의 현황을

1) 나은미,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검토 및 제언」, 『리터러시 연구』 제1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0, pp.69-92.

2) 김정숙·백윤경, 「대학 글쓰기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의 분석과 시사점」, 『인문학연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도 출된 주제어만으로는 실제 연구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혜진의 「한국의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미래」에서는 『한국문예창작』에 게재된 글쓰기 관련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학회지 성격상 대학 교양 글쓰기뿐만 아니라 문학적 글쓰기 관련 연구까지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다.³⁾

이처럼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앞의 세 편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대학 글쓰기가 아닌 글쓰기 교육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해 보면 추가적으로 몇 편의 논문을 더 살펴볼 수 있다. 글쓰기 교육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재승의 「작문 교육 연구의 동향과 방향」이 있다. 이재승은 이 논문을 통해 작문 교육 연구 동향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⁴⁾ 그의 연구는 국내 작문 교육의 연구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2004년 이전까지의 연구만을 다루다 보니, 201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과정 안에서의 글쓰기 교육을 다루기보다는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글쓰기 교육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방향과 다

구」 56권 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pp.357-389.

3) 이혜진, 「한국의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미래」, 『한국문예창작』 18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pp.151-175.

4) 이재승, 「작문 교육 연구의 동향과 방향」, 『청람어문교육』 제32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5, pp.99-122.

른 측면이 있다.

박영목의 「작문교육 연구 방법 동향」 연구 역시 주목할 만하다.⁵⁾ 이 연구는 작문이론 연구의 흐름에 맞춰 국외의 작문교육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 역시, 시기적으로 2003년에 발표되었다는 점과 국외의 연구 방법 동향이 소략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나타난다.

한철우·전은주·김명순·박영민의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국어교육과적인 측면에서 표현·이해 교육을 화법·독서·작문으로 나누고 작문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한 장으로 할애하여 작문 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바 있다.⁶⁾ 그러나 이 역시 2005년에 발표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 중에서는 이지영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학술지 『리터러시연구』 연구 동향 분석」⁷⁾,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학술지 『사고와 표현』 연구 동향 분석」⁸⁾이 있다. 이 두 연구는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글쓰기 전문학술지라 할 수 있는 『리터러시연구』와 『사고와 표현』에 수록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리터러시연구』에 수록된 441편의 연구, 『사고와 표현』에 수록된 610편의

5) 박영목, 「작문교육 연구 방법 동향」, 『청람어문교육』 제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pp.5-24.

6) 한철우·전은주·김명순·박영민,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2집, 국어교육학회, 2005, pp.31-96.

7) 이지영,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학술지 『리터러시연구』 연구 동향 분석」, 『리터러시 연구』 11권 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pp.537-565.

8) 이지영,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학술지 『사고와 표현』 연구 동향 분석」, 『사고와표현』 13권 3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0, pp.235-263.

연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 대상이 많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마이닝의 하나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할 경우, 모든 연구 대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각 연구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며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분석할 때에 놓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이외에도 대학 글쓰기 연구 전반을 살펴보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있다. 김경화는 쓰기 교육에서의 하이퍼텍스트에 관한 연구 동향⁹⁾을 살펴보았으며, 김정이는 이공계 글쓰기 수업 연구 동향¹⁰⁾을 살펴보았다. 또한, 김혜연은 협동 글쓰기¹¹⁾를, 손혜숙은 자기 탐색적 글쓰기¹²⁾를, 오세영은 컴퓨터 작문 교육의 연구 동향¹³⁾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사 검토 작업 또한 필요하리라 본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대학 글쓰기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 분석이 선행된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전체 연구 흐름 속에서의 각 세부 주제 연구가 지니는 학술적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리라 본다.

9) 김경화, 「국어 교육에서 하이퍼텍스트 연구 동향 탐색」, 『리터러시 연구』 10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pp.353-392.

10) 김정이, 「이공계 글쓰기 수업 연구의 동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집, 한국융합학회, 2018, pp.41-50.

11) 김혜연, 「협동 글쓰기의 국내의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작문연구』 제34집, 한국작문학회, 2017, pp.7-49.

12) 손혜숙, 「자기 탐색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동향」, 『교양학연구』 제1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5, pp.185-207.

13) 오세영, 「컴퓨터 작문 교육의 연구 동향」, 『우리말글』 제55집, 우리말글학회, 2012, pp.77-111.

이처럼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수에 비해 연구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나마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도 2000년대에 이루어졌다 보니, 2010년대에 급증한 대학 글쓰기 연구 동향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시기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에 선행 연구들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고 2020년을 마무리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20년간의 대학 글쓰기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대학 글쓰기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을 수집했다. 우선, KCI에 검색어로 ‘대학 글쓰기’를 입력하여, KCI에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게재 논문을 1차 수집했다. 이때 KCI 등재후보지 이상급 학술지에 수록된 학술논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되 철회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조건으로 연구 대상을 정리한 결과, 1차 수집된 연구 대상은 총 1,710편이었다.

그런 다음, 1차 수집한 연구 대상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글쓰기나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글쓰기를 다룬 경우, 그리고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대학 글쓰기’로 검색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대학 글쓰기와 관련되지 않은 연구들도 논문의 원문을 확인해 가며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233편의 연구 대상이 수집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글쓰기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수집된 연구 대상의 분석은 통계 분석과 내용 분석의 두 가지 방식을 활용했다. 통계 분석은 연도별·학술지별 발표 논문 추이 등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SPSS 26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연구 주제의 추이를 간접 추론하고자 텍스트마이닝을 위한 R 프로그램(버전 4.1.1.)도 함께 활용했다.

이때 텍스트마이닝은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상위빈도 출현 단어를 추출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할 경우에는 논문 주제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연구자마다 주제어를 제시하는 기준이 각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떤 연구자는 해당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로서 주제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 등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단어를 주제어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글쓰기, 대학 글쓰기, 작문’ 등처럼 유사한 어휘를 주제어로 동시에 나열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제어가 해당 논문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논문의 주제어가 아닌 제목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했다. 논문 제목은 분석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은 있으나, 해당 논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불용어 처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학 글쓰기 논문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용어인 ‘대학, 글쓰기, 작문, 연구, 쓰기, 대학생’ 등을 비롯하여 ‘활용, 이용, 관련, 기반’ 등과 같은 용어 등을 불용어로 처리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상위빈도 출현 단어 빈도표를 통해

제대로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의 경우에는 불용어 또는 유사어로 처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상위 빈도 출현 단어를 추출하여 연구의 동향을 추론해 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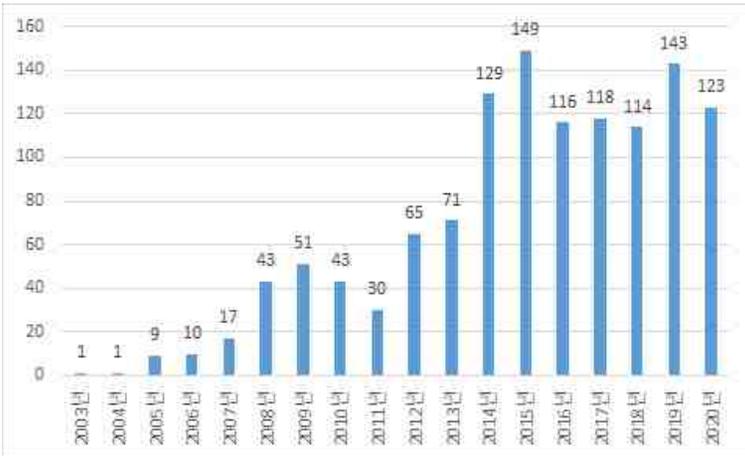
그런데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연구 동향을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좀 더 실질적으로 세부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연구자가 해당 논문의 원문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학 글쓰기 교육 제반 여건 분석 연구, 수요자 중심의 대학 글쓰기 교수법 연구, 대학 글쓰기의 원리 및 내용 연구’로 세부 주제를 구분하여 각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세부 주제는 대학 글쓰기 관련 개별 연구를 유사 상위 주제 단위로 묶어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결과, 비교적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동향으로 세 가지를 도출한 결과이다.

IV. 연구 결과

1. 양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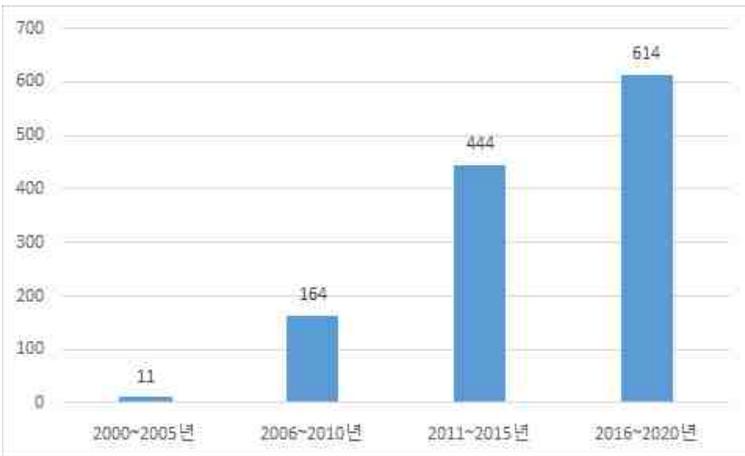
1) 발표 논문의 양적 변화 추이

대학 글쓰기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양적 측면에서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논문의 발표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관련 연구가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논문 발표 추이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면, 변화 추이를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01~2005년까지는 11편에 불과했던 논문이 2016~2020년까지는 614편으로 대폭 증가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기간별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논문 발표 추이

대학 글쓰기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는 203종에 이른다. 203종의 학술지 중에서 10편 이상 관련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총 29종이다(<표 1> 참조).

<표 1>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논문 수록 학술지

연번	학술지명	빈도	퍼센트
1	리터러시 연구	147	11.9
2	교양교육연구	125	10.1
3	작문연구	90	7.3
4	사고와표현	50	4.1
5	문화와 융합	38	3.1
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35	2.8
7	새국어교육	28	2.3
8	어문론집	28	2.3
9	인문학연구	28	2.3
10	우리어문연구	26	2.1
11	반교어문연구	22	1.8
12	어문연구	19	1.5
13	국제어문	17	1.4
1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	1.3
15	우리말글	15	1.2
16	인문사회 21	15	1.2
17	국어교육연구	14	1.1
18	국어교육학연구	14	1.1
19	어문연구	14	1.1
20	한민족문화연구	12	1.0
21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	0.9
22	우리문학연구	11	0.9
23	한국문예창작	11	0.9
24	국어문학	10	0.8
25	비평문학	10	0.8
26	시학과 언어학	10	0.8
27	어문학	10	0.8
28	한국언어문학	10	0.8
29	한민족어문학	10	0.8

대학 글쓰기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이 많이 게재된 『리터러시 연구』, 『작문연구』, 『사고와표현』은 각각 리터러시학회(구 대학작문학회), 한국작문학회, 한국사고와표현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이다. 이들 학술지를 발행한 세 학회는 본격적으로 글쓰기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삼은 학회이다. 2005년 6월에 창립된 한국작문학회는 그해 11월에 『작문연구』 창간호를 발간하면서¹⁴⁾, 대학 글쓰기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수 있는 학문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2007년 10월에 한국사고와표현학회가 창립되어 2008년 11월에 『사고와표현』 창간호가 발간되고¹⁵⁾, 2010년 8월에 대학작문학회가 창립되어 그해 11월에 『대학작문』 창간호가 발간된 점¹⁶⁾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세 학회의 등장을 통해, 2010년대는 본격적으로 대학 글쓰기 연구가 자리 잡기 시작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어국문학/국어교육 분야나 교양교육 관련 분야의 여러 학술지에서도 대학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의 양적 성장 배경에는 대학 글쓰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 학회의 존립 이외에도 2010년대부터 각 대학에서 교양교육 질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글쓰기 전담 교원을 배치하면서, 대학 글쓰기를 주된 연구 분야로 삼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기 시작

14) 한국작문학회, 「학회 연혁」, 『한국작문학회 홈페이지』, http://www.rokwa.org/html/sub01_02.asp(검색일: 2021. 7. 1.)

15)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회 소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홈페이지』, <https://sagowa.jams.or.kr/co/main/jmMain.kci>(검색일: 2021. 7. 1.)

16) 한국리터러시학회, 「연혁」, 『한국리터러시학회 홈페이지』, <http://www.kcccc.net/subList/32000000160>(검색일: 2021. 7. 1.)

했다는 점도 있다.¹⁷⁾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게재 학술지가 속한 학문 주제 분야가 63개에 이른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속한 학문 분야는 ‘한국어와문학’ 분야로 전체 34.4%에 이른다. 다음으로 ‘학제간연구’, ‘교양기초교육’, ‘기타인문학’ 순으로 이어진다. 이는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가 ‘한국어와문학’ 분야에 가장 많이 속해 있지만, 글쓰기가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한 분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의 학문 주제 분야 상위 10개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논문 수록 학술지 학문 주제 분야

연번	학문 주제 분야	빈도	퍼센트
1	한국어와문학	424	34.4
2	학제간연구	188	15.2
3	교양기초교육	156	12.7
4	기타인문학	114	9.2
5	국어교육	65	5.3
6	분야교육	50	4.1
7	교과교육학	38	3.1
8	교육학	33	2.7
9	문학	17	1.4
10	기타사회과학	16	1.3

2) 상위 빈도 출현 단어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논문 제목에서 상위 빈도 출현 단어를 텍스트

17)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교양교육연구』 제14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pp.12-15.

마이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이때 전체 기간 이외에 2001~2005년, 2006~2010년, 2011년~2015년, 2016~2020년과 같이 5년 단위로 각 기간별 상위 빈도 출현 단어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간별 연구 동향 변화 추이를 알아보았다. 다만, 2001~2005년의 경우에는 연구 편수가 11편으로 적다 보니, 다른 기간과의 상위 빈도 출현 단어를 비교하는 데 적절하지 않아 2001~2005년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상위 빈도 출현 단어 수는 <표 3>과 같다.¹⁸⁾

<표 3>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논문 제목 상위 빈도 출현 단어

연번	전체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교육	449	교육	68	교육	166	교육	251
2	방법	212	분석	18	방법	77	수업	137
3	수업	196	방법	16	수업	63	방법	124
4	사례	171	피드백	15	사례	50	사례	110
5	학습	155	사례	14	자아	50	학습	98
6	자아	111	교과	13	학습	49	자아	63
7	교양	101	교양	13	교양	40	교과	56
8	분석	97	논술	13	분석	30	분석	56
9	교과	86	이공계	12	운영	30	교양	50
10	향상	78	교재	11	피드백	29	향상	44
11	운영	70	수업	10	이공계	28	운영	38
12	효과	70	과정	9	교과	27	역량	37
13	이공계	66	자아	9	효과	27	효과	35
14	피드백	63	평가	9	모형	22	교재	34
15	역량	55	비판	8	향상	22	인식	32

18) <표 3>과 같은 빈도표 이외에 각 기간별 상위 출현 빈도 단어 수를 바탕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보다는 <표 3>의 빈도표가 결과를 해석하는 데 더 적합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빈도표만 제시했음을 밝혀둔다.

<표 3>의 전체 기간 상위 빈도 출현 단어를 살펴보면, ‘교육, 방법, 수업, 사례, 학습’이 상위 5위 이내로 등장하여, 대학 글쓰기 연구가 교육과 학습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로 등장한 단어들도 주로 교육과 학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용어들이다. 다만, ‘자아’가 6번째 순위로 등장하는데, 대학 글쓰기가 교육적 측면 이외에 자아성찰의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각 시기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2011~2015년의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발표된 연구와 비교했을 때, ‘피드백, 논술, 이공계’와 같은 단어가 상위 순위로 등장한다. 이는 본격적으로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가 시작된 2006~2010년 사이에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주요한 방법으로서 피드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논술과 같은 논증적 글쓰기와 이공계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2011~2015년에는 ‘자아’의 출현 빈도 순위가 상승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에 ‘자아’ 관련 대학 글쓰기 논문이 증가한 것은 당시의 각 대학 내에서 교육과정 안에 자아성찰에세이 쓰기를 포함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희대에서 2011년에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출범하면서 교양필수로 지정된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자아성찰로 삼으면서 관련된 연구가 많아진 바 있다.¹⁹⁾

2016~2020년에는 ‘역량’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며, ‘항상’의 출현 빈도 순위도 상승한다. 이 시기에 역량이라는 단어의 출현 빈도가

19) 오태호,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우리어문연구』 제43집, 우리어문화회, 2012, pp.70-72.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가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이 역량 함양에 맞춰졌기 때문이다.²⁰⁾ 사실, 역량이라는 개념은 OECD가 1997년에 발표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와 2010년에 개발된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통해 잘 알려진 바 있다.²¹⁾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역량 개념을 도입하면서 관련 연구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향상’이라는 단어의 출현 빈도 또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제목의 상위 빈도 출현 단어를 통해 각 기간별 연구 동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각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각 연구논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며, 세부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학 글쓰기 연구논문의 세부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세부주제별 연구 동향

1) 대학 글쓰기 교육 제반 여건 분석 연구

2001~2020년까지의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세부주제는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

20)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 2015. 9. 2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0753&lev=0&m=0204>에서 인출(검색일: 2021. 7. 10.)

21) 진미석·손유미·주희정,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권 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pp.462-463.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각 시기별 특징을 도출하고 그 시기에 부합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본다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특정 대학의 글쓰기 관련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분석한 연구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중앙대의 사례를 살펴본 신현규의 「중앙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²²⁾, 숙명여대의 사례를 살펴본 김병길의 「대학글쓰기 교육과 인문학 지평의 확장」²³⁾, 충남대의 사례를 살펴본 김정숙의 「대학 글쓰기 교과목의 운영 현황과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²⁴⁾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특정 대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방식이나 정책 등을 재점검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련 연구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점차 각 대학마다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두 번째 유형은 국내 대학 글쓰기 교육 전반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조미숙의 「교양과목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 그 흐름과 전망」²⁵⁾, 이재현의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22) 신현규, 「중앙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 『어문론집』 제48집, 중앙어문학회, 2011, pp.115-239.

23) 김병길, 「대학글쓰기 교육과 인문학 지평의 확장」, 『우리어문연구』 제43집, 우리어문학회, 2012, pp.7-31.

24) 김정숙, 「대학 글쓰기 교과목의 운영 현황과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비평문학』 제53집, 한국비평문학회, 2014, pp.7-38.

25) 조미숙, 「교양과목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 그 흐름과 전망」, 『새국어교육』 제

실태와 중소규모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글쓰기 교과 운영 방안」²⁶⁾, 김현정의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²⁷⁾ 등이 있다. 조미숙은 국내 대학의 글쓰기 교육 현황을 고려 및 조선시대를 포함한 광복 이전 시기부터 글쓰기 교육 현황을 살펴본 다음, 광복 이후의 <대학국어> 교과목에서부터 <대학글쓰기>에 이르는 시기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²⁸⁾ 이재현은 중소규모 대학의 특성에 맞는 글쓰기 교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의 35개 중소규모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²⁹⁾ 김현정은 2000~2005년, 2006~2015년, 2016~2020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국내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³⁰⁾ 이러한 연구는 국내 글쓰기 교육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국내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이외에도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본질이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김현정의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의 본질과 방향」³¹⁾, 김주언의 「인문학적 실천을 모색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³²⁾가 그러한 연구에 속한다. 이들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육을 둘러

8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pp.441-466.

26) 이재현,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중소규모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글쓰기 교과 운영 방안」, 『작문연구』 제27집, 한국작문학회, 2015, pp.119-144.

27)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앞의 논문, pp.11-23.

28) 조미숙, 앞의 논문.

29) 이재현, 앞의 논문.

30)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앞의 논문.

31) 김현정,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의 본질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6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pp.79-103.

32) 김주언, 「인문학적 실천을 모색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문학이론

싼 답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는 특징이 있다.

글쓰기 교육의 목표나 교재와 같이 세부적으로 각 대학의 글쓰기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도 있다. 이때에도 특정 대학의 사례에 국한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으나, 여러 대학의 교재 분석을 통해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을 점검하고자 한 연구 또한 진행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나은미의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현황 분석」에서는 2008년 당시의 7개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을 통해 글쓰기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³³⁾ 또한 김정숙·백윤경의 「대학 글쓰기 교재의 현황과 발전적 방향」에서는 10개의 거점국립대학 글쓰기 교재를 분석하기도 했다.³⁴⁾

이러한 글쓰기 교재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정희모의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준거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³⁵⁾ 또한 주민재의 「정교회 이론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 연구」 역시 Reigeluth의 정교회 이론에 입각하여 글쓰기 교재에 나타난 교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교재 구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³⁶⁾ 각 대학에서 교재를 자체적으로

과비평』 제6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4, pp.115-134.

33) 나은미,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현황 분석」, 『우리어문연구』 제32집, 우리어문학회, 2008, pp.7-34.

34) 김정숙·백윤경, 「대학 글쓰기 교재의 현황과 발전적 방향」, 『인문학연구』 56권 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pp.83-116.

35)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준거 연구」, 『국어국문학』 제148집, 국어국문학회, 2008, pp.243-277.

36) 주민재, 「정교회 이론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 연구」, 『작문연구』 제8집,

개발하여 공통 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어떠한 준거로 교재를 편찬할 것이냐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연구는 교재 편찬 시 자체 진단해 볼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과 개설 현황이나 교육의 방향, 교재 구성과 같이 대학 글쓰기 교육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글쓰기 상담/피드백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글쓰기센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특정 대학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와 국내 대학의 전반적인 글쓰기센터 운영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례 중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중에는 학부생을 상담요원으로 양성하여 활용한 전남대의 사례를 다룬 염민호·김아연·김현정의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성과와 과제」가 있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남대의 글쓰기 상담실 운영 사례를 분석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는 운영 사례가 없는 학부생 상담요원 활용 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⁷⁾ 국내 대학 전반의 글쓰기센터 운영 사례를 살펴본 연구로는 임선애의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현황과 과제」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9개 대학의 글쓰기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의 글쓰기센터 운영 현황까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³⁸⁾

한국작문학회, 2009, pp.197-229.

37) 염민호·김아연·김현정,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성과와 과제」, 『작문연구』 제22집, 한국작문학회, 2014, pp.61-95.

38) 임선애,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연구』 제21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pp.133-156.

이외에도 글쓰기 교육을 위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 김현정·정나래의 「수요자 중심의 대학 글쓰기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³⁹⁾, 박은숙·최윤희의 「대학 CTL 글쓰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⁴⁰⁾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연구는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규 글쓰기 교육 이외에 대학 글쓰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2) 수요자 중심의 대학 글쓰기 교수법 연구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각 대학에서 글쓰기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글쓰기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글쓰기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대학 글쓰기 교수법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게 된다.

대학 글쓰기 교수법 관련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 교수법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이다. 그중에서도 이공계열 학생을 위한 글쓰기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매년 끊임없이 발표되는 중이다. 이공계열 학생을 위한 글쓰기 관련 연구로는 김민정의 「이공계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방법론과 운영에 대한 연

39) 김현정·정나래, 「수요자 중심의 대학 글쓰기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작문연구』 제11집, 한국작문학회, 2010, pp.325-352.

40) 박은숙·최윤희, 「대학 CTL 글쓰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문사회21』 7권 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pp.69-90.

구⁴¹⁾, 신선경의 「공학인증과 공학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모델」⁴²⁾ 등이 있다. 이처럼 이공계 학생을 위한 글쓰기 연구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공학교육인증제가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는 2001년도에 시범 도입된 이래, 2020년 5월 기준으로 83개 대학 449개 프로그램이 인증받을 만큼, 국내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⁴³⁾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성과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제시된 10개 학습성과 중의 하나가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측면에서 이공계 교육과정 안에서 <공학의사소통> 등의 명칭으로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공학인증과 연계한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열 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이외에도 전공 연계 글쓰기 교육(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이하 WAC)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WAC의 경우, 미국 대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지만, 국내 대학에서는 시범적으로만 적용될 뿐 미국 대학처럼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다 보니 미국 대학의 WAC 운영 사례를 소개하거나, 국내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WAC의

41) 김민정, 「이공계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방법론과 운영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 이론과비평』 제3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pp.221-245.

42) 신선경, 「공학인증과 공학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모델」,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pp.63-88.

4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현황」,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abeeek.or.kr/program/total>에서 인출(검색일: 2021. 7. 15.)

44)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기준2015」,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abeeek.or.kr/intro/standard>에서 인출(검색일: 2021. 7. 15.)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김병길의 「교과과정 연계방안으로서 WAC 프로그램 도입 사례 연구」⁴⁵⁾, 원만희의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⁴⁶⁾, 염민호·김현정의 「대학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논술중심전공교과(WAC)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⁴⁷⁾, 안상희의 「범교과적 글쓰기(WAC)를 통한 대학 글쓰기 교육」⁴⁸⁾ 등이 있다.

읽기나 말하기를 글쓰기 교육과 연계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글쓰기로 인해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쓰기만으로는 의사소통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반성으로 읽기와 말하기를 글쓰기와 연계한 교육을 시도하는 대학들이 많다. 이에 본격적으로 읽기나 말하기를 글쓰기와 접목한 교과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녀의 「대학 읽기·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교육 방안」⁴⁹⁾, 김성수의 「대학 기초·교양교육에서 읽기-쓰기 통합 교육의 구성과 활용 방안」⁵⁰⁾, 박현이의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말하기 연계 교

45) 김병길, 「교과과정 연계방안으로서 WAC 프로그램 도입 사례 연구」, 『새국어교육』 제8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pp.49-72.

46) 원만희,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 『수사학』 제13집, 한국수사학회, 2010, pp.191-219.

47) 염민호·김현정, 「대학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논술중심전공교과(WAC)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교육학연구』 51권 2호, 한국교육학회, 2013, pp.169-198.

48) 안상희, 「범교과적 글쓰기(WAC)를 통한 대학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 제24집, 한국작문학회, 2015, pp.113-134.

49) 김정녀, 「대학 읽기·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교육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44집, 한민족문화학회, 2013, pp.447-486.

50) 김성수, 「대학 기초·교양교육에서 읽기-쓰기 통합 교육의 구성과 활용 방안」, 『리터러시 연구』 9권 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8, pp.225-273.

육 연구,⁵¹⁾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수법을 다룬 연구도 많이 등장하는 연구이다. PBL, 플립러닝, 협력학습 등의 교수법을 글쓰기 교육에 적용하고자 한 연구들이 그러한 예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미진의 「PBL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실제」⁵²⁾, 엄성원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모형 연구」⁵³⁾ 등이 있다. 이러한 학생 활동 중심의 교수법 이외에 연구자들이 각자의 수업에 활용한 수업 자료나 매체 등을 소개하는 연구들도 많이 발표되는 중이다.

3) 대학 글쓰기의 원리 및 내용 연구

대학 글쓰기 교과목 운영 현황이나 관련 교수법 등을 다루는 연구 이외에도 대학 글쓰기의 원리나 내용을 다루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본격적으로 글쓰기의 원리를 다루기보다는 교수법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는 경향이 높다. 글쓰기의 원리와 내용적 측면을 교수법적으로 연결한 연구들은 장르, 어문규범, 평가, 피드백, 필자 정서, 윤리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글쓰기 장르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나은미의 「장르의 전형성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⁵⁴⁾, 이윤빈의 「장르 인식 기반 대학 글

51) 박현이,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말하기 연계 교육 연구」, 『문화와융합』 42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pp.193-227.

52) 최미진, 「PBL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실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pp.409-436.

53) 엄성원, 「플립 러닝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모형 연구」, 『리터러시 연구』 제15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pp.73-97.

54) 나은미, 「장르의 전형성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작문연구』 제14집, 한국작문학회, 2012, pp.109-136.

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⁵⁵⁾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장르 이론을 소개하고, 이러한 장르 이론에 입각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론적 측면에서 장르를 살펴본 연구보다는 특정 장르의 특성을 소개하고 해당 장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수법을 다룬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때 김병구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⁵⁶⁾과 같이 논술과 같은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와 박현희의 「대학의 학술적 서평 쓰기 교육의 과정 중심 접근」⁵⁷⁾과 같이 서평과 같은 비평적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이후로 정연희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위한 제언」⁵⁸⁾과 같이 성찰적 글쓰기를 다루는 연구도 급증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혜경의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연구」⁵⁹⁾와 같이 취업과 같은 실용적 목적에서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다룬 연구도 있다.

어문규범에 관한 연구는 어휘나 문장 표현 측면에서 어떻게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경완의 「대학 글쓰기

55) 이운빈, 「장르 인식 기반 대학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작문연구』 제26집, 한국작문학회, 2015, pp.107-142.

56) 김병구,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pp.5-29.

57) 박현희, 「대학의 학술적 서평 쓰기 교육의 과정 중심 접근」, 『교양교육연구』 11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p.173-208.

58) 정연희,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위한 제언」, 『우리어문연구』 제43집, 우리어문학회, 2012, pp.125-151.

59) 김혜경,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연구」, 『비평문학』 제51집, 한국비평학회, 2014, pp.7-34.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문 규정 교육의 현황 분석과 방향 모색」⁶⁰⁾, 김지혜의 「글쓰기 수업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⁶¹⁾ 등이 그 예이다.

글쓰기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정희모의 「대학 글쓰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향상을 위한 한 방안」은 외국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연구 중 하나이다.⁶²⁾ 이외에도 김병길의 「대학 글쓰기 평가 방법과 실태 연구」는 글쓰기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⁶³⁾

평가의 측면과 관련지어 글쓰기 피드백/첨삭/수정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피드백/첨삭/수정은 글쓰기 교육의 핵심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글쓰기 피드백의 방법이나 효과 등을 비교 연구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정희모·이재성의 「대학생 글쓰기의 수정 방법에 관한 실험 연구」⁶⁴⁾, 오윤호의 「대학 글쓰기의 효과적인 피드백 방안」⁶⁵⁾, 염민호·김현정의 「대학 글쓰기 교과

60) 남경완, 「대학 글쓰기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문 규정 교육의 현황 분석과 방향 모색」, 『우리어문연구』 제31집, 우리어문학회, 2008, pp.7-41.

61) 김지혜, 「글쓰기 수업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 『리터러시연구』 10권 5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pp.177-213.

62) 정희모, 「대학 글쓰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향상을 위한 한 방안」, 『작문연구』 제9집, 한국작문학회, 2009, pp.277-305.

63) 김병길, 「대학 글쓰기 평가 방법과 실태 연구」, 『작문연구』 제8집, 한국작문학회, 2009, pp.141-164.

64) 정희모·이재성, 「대학생 글쓰기의 수정 방법에 관한 실험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3집, 국어교육학회, 2008, pp.657-685.

65) 오윤호, 「대학 글쓰기의 효과적인 피드백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25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pp.139-164.

에 활용 가능한 피드백의 특성과 방법」⁶⁶⁾ 등이 그러한 연구 중의 하나이다.

글쓰기 윤리에 대한 연구도 빠질 수 없는 유형이다. 이인재의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 교육」⁶⁷⁾, 전동진의 「글쓰기 윤리의 정립과 윤리 의식 제고 방안 연구」⁶⁸⁾, 이윤진의 「작문 교육에서 글쓰기 윤리 연구의 쟁점과 과제」⁶⁹⁾ 등에서는 글쓰기 윤리 위반 사례를 통해 올바른 인용 교육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필자의 쓰기 동기나 자기효능감 등을 분석하는 연구나 독자의 입장에서 대학 글쓰기를 바라보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배상훈·윤유진의 「대학생의 글쓰기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글쓰기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⁷⁰⁾, 백혜선·방상호의 「대학생의 쓰기 효능감 양상 연구」⁷¹⁾, 정희모의 「글쓰기에서 독자의 의미와 기능」⁷²⁾과 같은 연구가 바로 그러하다.

66) 염민호·김현정, 「대학 글쓰기 교과에 활용 가능한 피드백의 특성과 방법」, 『새국어교육』 제8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pp.311-336.

67) 이인재,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 교육」, 『작문연구』 제6집, 한국작문학회, 2008, pp.129-159.

68) 전동진, 「글쓰기 윤리의 정립과 윤리 의식 제고 방안 연구」, 『국제어문』 제55집, 국제어문학회, 2012, pp.565-598.

69) 이윤진, 「작문 교육에서 글쓰기 윤리 연구의 쟁점과 과제」, 『작문연구』 제21집, 한국작문학회, 2014, pp.89-121.

70) 배상훈·윤유진, 「대학생의 글쓰기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글쓰기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역량개발학습연구』 7권 3호,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012, pp.1-19.

71) 백혜선·방상호, 「대학생의 쓰기 효능감 양상 연구」, 『리터러시 연구』 9권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8, pp.101-126.

72) 정희모, 「글쓰기에서 독자의 의미와 기능」, 『새국어교육』 제7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pp.393-417.

V. 결론 및 시사점

지난 20년 동안의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의 대학 글쓰기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대학 글쓰기’를 주제로 매년 100여 편 이상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만큼, 대학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주로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 등을 분석하고, 대학 글쓰기 교육 정책 및 운영의 개선 방향 등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대학 글쓰기 관련 교과목이 각 대학에 정착된 이후에는 이러한 연구보다는 대학 글쓰기 교수법에서부터 대학 글쓰기의 원리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로 연구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에 대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세부 연구 주제의 폭이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한계는 존재한다. 이에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하는 목적에서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글쓰기 교수법과 관련된 연구 중 상당수는 교수자의 개별적인 교수법 사례를 소개하는 차원으로만 그친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아울러 이러한 교수법에 대한 효과 검증은 수강생들에게 만족도나 수업 효과를 물어보는 목적의 단순 설문조사 결과로 대체하는 연구가 많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대학 글쓰기 연구 초창기에는 대학 글쓰기 교과가 각 대학마다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는 연구도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 연구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는 보다 정교하게 교수법 설계 원리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법 적용에 대한 효과 검증 또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새로운 교수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필자의 정서나 동기, 자기효능감 등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학 글쓰기에서의 필자 연구는 다양한 성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필자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글쓰기 필자 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필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발달에 부합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도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쓰기가 과거에는 단순히 문자 텍스트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매체 안에서 문자 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이미지, 영상과의 결합을 통해 글을 쓰는 것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매체 변화에 따라 글쓰기의 인지 과정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매체 변화에 맞는 글쓰기 전략을 새롭게 연구할 필요도 있다. 매체의 변화는 필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중요한 글쓰기 교과목의 경우, 매체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년 동안 개별 수업의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온 만큼, 현재의 시점에서는 대규모 수준의 쓰기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교수자가 자신이 직접 수업한 교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어져 있다. 그런데 대학마다 학생들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대학 또는 개별 수업 단위의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지금까지의 소규모 단위의 연구가 아닌 대규모 단위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글쓰기 진단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 또는 대학 단위로 활용해 보는 연구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종단 연구를 통해 대학생 필자 연구나 쓰기 역량 변화 측정 등의 연구도 수행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는 글쓰기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보다는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정책이나 개별 교수자들의 교수법 사례 등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를 연구하고자 한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글쓰기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는 기존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연구와 같이 주기적으로 연구 동향을 점검해 보며, 기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이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의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수합할 때에 ‘대학 글쓰기’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만 연구 대상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 방법의 한계는 존재한다. 대학 글쓰기로 검색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대학 글쓰기를 다룬 연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 글쓰기에 대한 전체 연구 동향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마이닝을 비롯한 양적 통계 분석 방법을 비롯하여 해당 연구의 내용

분석을 통해 1,200여 편이 넘는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 부족함은 없으리라 본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대학 글쓰기가 아닌 글쓰기 전반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학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교육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2015. 9. 2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0753&lev=0&m=0204>에서 인출(검색일: 2021. 7. 10.)
- 김경화, 「국어 교육에서 하이퍼텍스트 연구 동향 탐색」, 『리터러시 연구』 10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pp.353-392. DOI: 0.37736/kjlr.2019.06.10.3.353
- 김민정, 「이공계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방법론과 운영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pp.221-245. UCI: G704-000665. 2007.11.1.013
- 김병구,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pp.5-29. UCI: G704-001785.2009..27.013
- 김병길, 「교과과정 연계방안으로서 WAC 프로그램 도입 사례 연구」, 『새국어교육』 제8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pp.49-72. DOI: 10.15734/koed..80.200812.49
- _____, 「대학 글쓰기 평가 방법과 실태 연구」, 『작문연구』 제8집, 한국작문학회, 2009, pp.141-164. UCI: G704-SER000010273.2009..8.011
- _____, 「대학글쓰기 교육과 인문학 지평의 확장」, 『우리어문연구』 제43집, 우리어문학회, 2012, pp.7-31. UCI: G704-001387.2012..43.008
- 김성수, 「대학 기초·교양교육에서 읽기 - 쓰기 통합 교육의 구성과 활용 방안」, 『리터러시 연구』 9권 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8, pp. 225-273. DOI: 10.37736/kjlr.2018.05.9.2.225
- 김정녀, 「대학 읽기·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교육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44집, 한민족문화학회, 2013, pp.447-486. DOI: 10.17329/kcbook.2013.44..015
- 김정숙, 「대학 글쓰기 교과목의 운영 현황과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비평문학』 제53집, 한국비평문학회, 2014, pp.7-38. UCI: G704-001210.2014..53.003
- 김정숙·백윤경, 「대학 글쓰기 교재의 현황과 발전적 방향」, 『인문학연구』 56권 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pp.83-116. UCI: G704-001795.2017.56.1.005
- _____, 「대학 글쓰기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의 분석과 시사점」, 『인문학연구』 56권 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pp.357-389.
- 김정이, 「이공계 글쓰기 수업 연구의 동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집, 한국융합학회, 2018, pp.41-50. DOI: 10.15207/JKCS.2018.9.1.041

- 김주언, 「인문학적 실천을 모색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6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4, pp.115-134. UCI : G704-000665. 2014.18.3.009
- 김지혜, 「글쓰기 수업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 『리터러시연구』 10권 5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pp.177-213. DOI : 10.37736/kjlr.2019.10.10.5.177
- 김현정,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서의 본질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6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pp.79-103. UCI : G704-SER000001745.2012.6.2.013
- _____,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교양교육연구』 14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pp.11-23. DOI : 10.46392/kjge.2020.14.5.11
- 김현정 · 정나래, 「수요자 중심의 대학 글쓰기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작문연구』 제11집, 한국작문학회, 2010, pp.325-352. UCI : G704-SER000010273. 2010..11.009
- 김혜경,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연구」, 『비평문학』 제51집, 한국비평문학회, 2014, pp.7-34. UCI : G704-001210.2014..51.002
- 김혜연, 「협동 글쓰기의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작문연구』 제34집, 한국작문학회, 2017, pp.7-49. DOI : 10.31565/korow.2017..34.001
- 나은미,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현황 분석」, 『우리어문연구』 제32집, 우리어문학회, 2008, pp.7-34. UCI : G704-001387.2008..32.001
- _____,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검토 및 제언」, 『리터러시 연구』 제1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0, pp.69-92.
- _____, 「장르의 전형성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작문연구』 제14집, 한국작문학회, 2012, pp.109-136. UCI : G704-SER000010273.2012..14.004
- 남경완, 「대학 글쓰기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문 규정 교육의 현황 분석과 방향 모색」, 『우리어문연구』 제31집, 우리어문학회, 2008, pp.7-41. UCI : G704-001387. 2008..31.010
- 박영목, 「작문교육 연구 방법 동향」, 『청람어문교육』 제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pp.5-24. UCI : G704-001465.2003..26.001
- 박은숙 · 최윤희, 「대학 CTL 글쓰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문사회21』 7권 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pp.69-90. DOI : 10.22143/HSS21.7.2.4
- 박현이,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말하기 연계 교육 연구」, 『문화와융합』

- 42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pp.193-227.
- 박현희, 「대학의 학술적 서평 쓰기 교육의 과정 중심 접근」, 『교양교육연구』 11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p.173-208. UCI : G704-SER000001745.2017.11.1.017
- 배상훈 · 윤유진, 「대학생의 글쓰기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글쓰기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역량개발학습연구』 7권 3호,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 전략연구소, 2012, pp.1-19. UCI : G704-SER000001418.2012.7.3.003
- 백혜선 · 방상호, 「대학생의 쓰기 효능감 양상 연구」, 『리터러시 연구』 9권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8, pp.101-126. DOI : 10.37736/kjlr.2018.03.9.1.101
- 손혜숙, 「자기 탐색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동향」, 『교양학연구』 제1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5, pp.185-207. DOI : 10.24173/jge.2015.06.1.185
- 신선경, 「공학인증과 공학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모델」,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pp.63-88. UCI : G704-001785.2009..27.012
- 신현규, 「중앙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 『어문론집』 제48집, 중앙어문학회, 2011, pp.115-239. UCI : G704-SER000009652.2011..48.008
- 안상희, 「범교과적 글쓰기(WAC)를 통한 대학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 제24집, 한국작문학회, 2015, pp.113-134. UCI : G704-SER000010273.2015..24.004
- 엄성원, 「플립 러닝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모형 연구」, 『리터러시 연구』 제15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pp.73-97. UCI : G704-SER000002684.2016..15.006
- 염민호 · 김아연 · 김현정,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성과와 과제」, 『작문연구』 제22집, 한국작문학회, 2014, pp.61-95. UCI : G704-SER000010273.2014..22.006
- 염민호 · 김현정, 「대학 글쓰기 교과에 활용 가능한 피드백의 특성과 방법」, 『새국어교육』 제8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pp.311-336. DOI : 10.15734/koed..83.200912.311
- _____, 「대학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논술중심전공교과(WAC)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교육학연구』 51권 2호, 한국교육학회, 2013, pp.169-198. UCI : G704-000614.2013.51.2.003
- 오세영, 「컴퓨터 작문 교육의 연구 동향」, 『우리말글』 제55집, 우리말글학회, 2012, pp.77-111. UCI : G704-001206.2012.55..011
- 오윤호, 「대학 글쓰기의 효과적인 피드백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25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pp.139-164. DOI : 10.17329/kcbook.2008..25.006

- 오태호,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우리어문연구』 제43집, 우리어문학회, 2012, pp.65-99. UCI : G704-001387.2012..43.012
- 원만희,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 『수사학』 제13집, 한국수사학회, 2010, pp.191-219. UCI : G704-002025.2010..13.004
- 이윤빈, 「장르 인식 기반 대학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작문연구』 제26집, 한국작문학회, 2015, pp.107-142. UCI : G704-SER000010273.2015..26.005
- 이윤진, 「작문 교육에서 글쓰기 윤리 연구의 쟁점과 과제」, 『작문연구』 제21집, 한국작문학회, 2014, pp.89-121. UCI : G704-SER000010273.2014..21.011
- 이인재,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 교육」, 『작문연구』 제6집, 한국작문학회, 2008, pp.129-159. UCI : G704-SER000010273.2008..6.003
- 이재승, 「작문 교육 연구의 동향과 방향」, 『청람어문교육』 제32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5, pp.99-122. UCI : G704-001465.2005..32.007
- 이재현,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중소규모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글쓰기 교과 운영 방안」, 『작문연구』 제27집, 한국작문학회, 2015, pp.119-144. UCI : G704-SER000010273.2015..27.003
- 이지영,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학술지 『사고와 표현』 연구 동향 분석」, 『사고와 표현』 13권 3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0, pp.235-263. DOI : 10.19042/kstc.2020.13.3.235
- 이지영,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학술지 『리터러시연구』 연구 동향 분석」, 『리터러시 연구』 11권 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pp.537-565. DOI : 10.37736/KJLR.2020.12.11.6.18
- 이혜진, 「한국의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미래」, 『한국문예창작』 18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pp.151-175
- 임선애,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연구』 제21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pp.133-156. DOI : 10.37736/kjlr.2017.09.21.133
- 전동진, 「글쓰기 윤리의 정립과 윤리 의식 제고 방안 연구」, 『국제어문』 제55집, 국제어문학회, 2012, pp.565-598. UCI : G704-000774.2012..55.001
- 정연희,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위한 제언」, 『우리어문연구』 제43집, 우리어문학회, 2012, pp.125-151. UCI : G704-001387.2012..43.005
- 정희모, 「글쓰기에서 독자의 의미와 기능」, 『새국어교육』 제7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 2008, pp.393-417. DOI : 10.15734/koed..79.200809.393
- _____,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준거 연구」, 『국어국문학회』 제148집, 국어국문학회, 2008, pp.243-277. DOI : 10.17291/kolali.2008.0.148.009
- _____, 「대학 글쓰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향상을 위한 한 방안」, 『작문연구』 제9집, 한국작문학회, 2009, pp.277-305. UCI : G704-SER000010273.2009..9.001
- 정희모 · 이재성, 「대학생 글쓰기의 수정 방법에 관한 실험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3집, 국어교육학회, 2008, pp.657-685. DOI : 10.20880/kler.2008..33.657
- 조미숙, 「교양과목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 그 흐름과 전망」, 『새국어교육』 제8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pp.441-466. DOI : 10.15734/koed..80.200812.441
- 주민재, 「정교화 이론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 연구」, 『작문연구』 제8집, 한국작문학회, 2009, pp.197-229. UCI : G704-SER000010273.2009..8.005
- 진미석 · 손유미 · 주희정,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권 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pp.461-486. UCI : G704-000511.2011.29.4.008
- 최미진, 「PBL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실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pp.409-436. DOI : 10.22273/SMLT.67.17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현황」,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abeeek.or.kr/program/total>에서 인출(검색일 : 2021. 7. 15.)
- _____,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기준 2015」,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abeeek.or.kr/intro/stendard>에서 인출(검색일 : 2021. 7. 15.)
- 한국리터러시학회, 「연혁」, 『한국리터러시학회 홈페이지』, <http://www.kcccc.net/subList/32000000160>(검색일 : 2021. 7. 1.)
-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회 소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홈페이지』, <https://sagowa.jams.or.kr/co/main/jmMain.kci>(검색일 : 2021. 7. 1.)
- 한국작문학회, 「학회 연혁」, 『한국작문학회 홈페이지』, http://www.rokwa.org/html/sub01_02.asp(검색일 : 2021. 7. 1.)
- 한철우 · 전은주 · 김명순 · 박영민, 「표현 · 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2집, 국어교육학회, 2005, pp.31-96. UCI : G704-001205.2005..22.002

Abstract

College Writing Research Trend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 Focusing on Academic Journals from 2001 to 2020 -

Kim, Hyeo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rends of college writing-related research and fi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statistical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on 1,233 studies related to 'College Writing' published in KCI-listed academic journals from 2001 to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search related to college writing had grown significantly in quantity over the past 20 years. When examining high-frequency occurrence words in thesis titles through text mining, 'education, method, class, case, learning' were presented in the top 5. Studies were mainly conducted on education and learning.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at various studies were conducted to analyze general conditions of college writing education, consumer-oriented college writing teaching methods, and principles and contents of college writing.

Through this study, improvement plans for college writing research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eaching metho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eaching and learning principl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university writers, research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large-scale research,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ollege writing education, and various theoretical studies about college writing.

Future research on college writing requires qualitative growth based on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and existing quantitative growth. For a qualitative growth, research that suggests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s necessary.

Key Words : college writing, writing research, writing research trend, writing research improvement direction

김현정

소속 : 순천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전자우편 : hjkim@scnu.ac.kr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